

# 12개국 여성작가 100명, 예술의 길을 묻다

**'2016 국제여성미술제' 10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지난 2012년 처음 열린 '국제여성미술제'는 오늘날 여성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 모성과 희생을 담보하는 삶의 여정을 시각 예술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작가들은 감성, 사회적 메시지를 작품에 담으며 담론을 제시하고 동시대적 문제를 제기한다.

10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제5회 '2016 국제여성미술제'가 열려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중외공원 불거리를 풍성하게 한다. '여성미술의 사회적 메시지-척후병: 변화의 전망'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영국, 호주, 러시아 등 12개국에서 100명이 참여한다. 서양화, 한국화, 도예, 조각,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장르 130여점을 출품하며 소통하고 교류한다.

(사)국제여성미술교류협회(대표 정순이)가 주관하고 광주시, 전남여성플라자, 한국미술협회, 광주비엔날레, 광주·전남여성작가회 등이 후원했다.

여성작가들은 출신 국가, 살아온 환경, 문화가 제각기 다르지만 양성평등, 사회참여 확대 등 동시대 여성의 사회적 메시지를 조형언어로 전달하는데 한 목소리를 낸다.

올해 주제 '척후병: 변화의 전망'은 '예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기획 의도와도 일치한다. 예술가 존재 방식과 그에 따른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사회를 가늠하고 성찰하는 게 목적이다. 사회 각 부분 유기성, 상호 작용, 관계를 정찰하고 정보를 수집, 탐색하는 척후병 역할을 시각화한다는 의미다.

전시실은 크게 2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주주제 '삶의 경로'에서는 여성미술 변화와 전개과정을 탐색해본다. 사회 구조, 규범, 정책, 법, 제도, 이데올로기 등을 입체화했다. 제2주주제 '역할거리'는 정치, 문

**'척후병: 변화의 전망' 주제**

**회화·영상 등 130여점 출품**

**양성평등·사회참여 목소리**

화, 사회 구조를 토대로 오늘날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살펴본다.

정순이 회장이 출품한 '시간으로의 여행'은 푸른 배경 위에 백합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진다. 마치 나비 날개처럼 보인다. 정 회장은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며 여성으로서 살아왔던 순간들을 작품에 담았다.

국제여성미술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정희 작가는 추상작품 '반의 십자가'를 선보인다. 꽃과 새, 사람이 어우러진 캔버스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영적 구원 세계로 나아가는 이상향이다.

호주에서 온 앤 마리 젤렌데 작가는 작품 'Domesticated'에는 양팔 위로 웃고 있는 고양이, 강아지를 올린 여성이 등장한다. 여성은 가정적으로만 살아야한다는 시각을 꼬집었다.

말레이시아 제이드 베 작가는 행복했던 순간을 작품에 담았다. 차를 마시며 답사를 나누고 있는 여성 두명을 그린 'Sharing Moments'는 일과 가정에 치우쳐 살며 정자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현대 여성 애환이 느껴진다.

그밖에 러시아 아나스타시야 벨리우비나 작가의 'Old Letters'는 옛 편지를 꺼내들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등장한다. 문의 062-613-536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정희 작 '반의 십자가'



제이드 베 작 'Sharing Moments'

## “예술 통한 미래 예측 주제 시의적절 주민과 함께 작품 완성 소통 돋보여”

**광주비엔날레 찾은 크리스토프 오스트리아 응용미술관장**

“2007년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며 우리 삶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술은 이에 맞춰 문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살펴보는 역할을 해야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는 올해 광주비엔날레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5일 오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만난 크리스토프 툰 호엔슈타인 오스트리아 응용미술관장은 '2016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호평했다.

1863년 설립된 오스트리아 응용미술관(MAK)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지난 2011년부터 광장직을 맡은 크리스토프 관장은 지난해부터 비엔나비엔날레



**“내년 비엔나비엔날레 준비**

**노하우·아이디어 배워갈 것”**

를 개최하며 디지털과 인간사회를 예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비엔나비엔날레는 예술, 건축, 디자인이 결합된 최첨단 비엔날레다.

그는 당시 큐레이터로 참여했던 마리아 린드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이 어떤 기획을 했는지 보기 위해 광주를 처음 방문했다.

이날 박양우 대표를 만나 비엔날레 방향, 기획 의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크리스토프 관장은 “광주비엔날레는 전세계 중요한 미술행사 중 하나다”며 “내년 비엔나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앞서 경험과 아이디어, 영감을 얻기 방문했다”고 말했다.

전시관을 둘러본 그는 자유롭게 배치된 작품과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상세한 작품설명을 제공하는 점을 높이 샀다. 또 어둠 속에서 영상작품만 상영하는 2전시실에 대해서도 “독특한 방식이었다”고 칭찬했다.

“녹두서점-산자와 죽은자, 우리 모두를 위한”을 제작한 도라 가르시아 작가가 좋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완성 작품을 출품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가장 인상깊었던 작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뉴 일람’ 프로젝트를 선보인 크리스토퍼 툰드라 토마스였다. 크리스토퍼 작

가는 스텝이 내전으로 사라져버린 ‘뉴 일람’ 마을을 소재로 브랜드가 어떻게 예술과 소통할 수 있는지 설치·영상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직 전시관을 자세히 살펴보는 않았지만 한국 작가들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불 등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비엔나비엔날레에도 신승백·김용훈 작가가 참여해 100개 카메라가 달린 옷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작가들을 주목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프 관장은 광주비엔날레 도록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등 내년 전시 기획에 참조할 계획이다. 또 광주비엔날레와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

끝으로 광주비엔날레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비엔날레는 전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는 연속성이 필요해요. 예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 광주·전남 중견도예가 ‘행복 담은 그릇’전 **광주롯데갤러리 10월 5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가 가을을 맞아 광주·전남 중견도예가들을 초청해 6일부터 10월 5일까지 ‘행복 담은 그릇’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영숙, 김인숙, 라필주, 유영대, 이지현, 이혜진, 홍성일 등 작가 7명이 가을을 주제로 만든 다채로운 도자 작품을 100여점을 선보인다.

탕관, 차호, 찻잔, 속우, 다관, 다반 등 다구(茶具)부터 전통미가 돋보이는 사발, 접시, 화병이 출품된다. 또 머그컵, 커피 드리퍼를 비롯한 현대적 감각의 생활자기 등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작품을 위주로 구성된다.

김인숙 작가는 하얀 표면에 푸른색 산수를 그려 세련된 감각이 엿보이는 ‘라구사발’을 출품했다. 또 이지현 작가가 제작한 ‘오월 백나비’는 흰 도자기 주전자 손잡이를 노란색으로 채색해 노란 나비를 연상시킨다. 김영숙 작가는 ‘떡살문 긴사각접시’를 통해 청자와 우리 전통 문양 매력을 전해주었다.

그밖에 고려청자, 조선 달항아리, 소박한 심성을 담아냈던 분청자 등 예술성과 실용성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롯데갤러리는 오는 24일 ‘작가와 함께하는 다도체험’을 진행한다. 문의 062-221-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인숙 작 '라구사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케이농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인들도 우리는 열창한다

노래방 탄생 25년, 대한민국은 지금 노래 열풍  
음악의 예능 점령 가속화, 전 국민의 가수화  
나의 꿈을 향해,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

**기획**  
2016 광주비엔날레 개막  
“제 8기후대에는 무엇이 있을까?”

- 2016 광주비엔날레 작품들과 그 의미  
- 공감시대 만드는 화제 작가 3인

**소문난 예술교육 현장을 찾아서**  
명성 자자한 현대미술관 특수공간  
근현대미술사아카데미

**노은은의 공의 여행**  
에코투어와 커피의 나라  
코스타리카

**남도 문화**  
심진경 따라 색채의 이야기 속으로  
문어, 참깨 등 참 고이는 밭마늘  
정미할 가듯한 기차마을 축제

**매장 초대석**

**대관령음악제 성공시킨 세계적 첼리스트 정명화**  
“함께한 지 6년, 첼로가 제 자신이죠”

**남도의 장인들**  
생의 아름다움을 차려내는 **남도의레음식장 민경숙**

**사람이 브랜드다**  
광주 남구, 견고한 고독과 기도의 시인 **김현승**

**정은수의 위대한 예술가의 저항과 선택**  
베트남 계승의 두 길레 **길 브람스 vs 바그너**

**작가 최정호의 그림과 함께한 음악여행-T**  
자연과 공연장에서 만난 낭만과 격정

**화제의 공연**  
9월에 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르는 지역협력연극 **‘홀스또메르’**

**다도해를 가다-유럽 와엔해 섬이야기**  
독일 최고의 휴양섬 **질트**

**광주공연하는 감동의 창작뮤지컬 ‘빨래’**

**연습으로 빛 발하는 KIA 타이거즈 와야수 김호령**

**스타 데이트**  
“첫 연기, 가족지 않았고 약간 힘들 뻔했어요”  
대박작 tvN ‘굿 와이프’로 날아오른 **나나**